2025학년도 2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중국과 한반도의 '두 개의 국가':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의 지정학적 요인과 결과 비교

이름	이*열
전공	한국역사학과
학번	2024****

중국과 한반도의 '두 개의 국가':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의 지정학적 요인과 결과 비교

2024** 이*열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방법과 논문구성
Ⅱ. 본론
1.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의 시대적 배경
2. 전쟁의 양상 - 내전과 국제전
3. 지리적 요인과 전쟁의 양상
Ⅲ. 결론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은 동아시아를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해방시켰으나, 이는 동시에 거대한 '힘의 공백'을 야기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갈등이 부상했다. 그 핵심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이었다. 이 갈등은 2차 대전 이전부터 잠재되어 있었으나, 공동의 적(추축국)에 맞서는 과정에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추축국의 몰락과 함께 냉전이 시작되자,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소련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개입으로 갈등은 격화되었고 동아시아는 양대 초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은 미·소 냉전의 격화와 함께 '국공내전(1945-1949)'과 '한국전쟁(1950-1953)'이라는 두 차례의 대규모 전면전으로 폭발했다. 두 전쟁은 현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 공산당은 대륙을 장악하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밀려났으며, 한반도는 휴전선을 경계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과거 1천 년 이상 통일국가를 유지했던 한(漢)족과 한민족이 각각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어 2025년 현재까지도 분단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이 두 전쟁의 결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비극의 원인이 된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은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두 전쟁은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공내전의 결과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고는 바로 이 두 전쟁의 연관성과 유사성에 주목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왜 중국과 한반도가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을 '지리적 배경'과 '전쟁의 결과'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지리적 환경이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규정했으며, 두 전쟁의 상이한 결과가 현재의 동아시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두 전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함으로써, 중국과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 체제가 들어서게 된 역사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일제가 패망한 1945년부터 한국전쟁이 휴전한 1953년까지로 한정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론에서는 두 전쟁의 시대적 배경, 전쟁의 성격(내전과 국제전), 지리적 특성이 전쟁 양상에 미친 영향을 각각 비교·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앞선 분석을 종합하여 두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동아시아 분단체제에 미친 영향을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의 시대적 배경

개전 시점으로 보았을 때 국공내전은 1945년, 한국전쟁은 1950년에 시작되었다. 두 전쟁은 시기적으로 거의 떨어져 있지 않으며, 사실상 같은 시대에 벌어진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두 개의 전쟁이 거의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전쟁의 직접적인 배경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갈등의 씨앗은 그보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7년 러시아는 구시대적인 사회구조로 인한 내부 모순에 더해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입은 인적, 물적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10월 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세워졌다. 이후 1922년 러시아 내전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정권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을 결성한다. 소련의 탄생은 당시 열강의 식민지, 반식민지였던 아시아 대륙의 국가들에게 거대한 변혁을 안겨주었고, 중국과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존 중국과 한국의 엘리트와 독립운동가들은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 자본주의의 성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민족, 민권, 민생을 중시한 쑨원의 삼민주의가 있으며,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이 승전국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중국의 주권 회복과 한국의 독립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본의 한국 지배와 열강의 중국 침탈은 지속되었으며, 많은 지식인들은 열강에 배신감을 느꼈다. 소련의 탄생은 그 자체로도 거대한 충격이었으나, 지식인들에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종전의 러시아 제국과 달리 소련은 연방제를 채택해 형식상 각 민족의 자결권을 보장했고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사상을 내세웠다. 나아가, 소련은 1919년 레닌의 주도 하에 국제 공산주의자 연합(코민테른)을 창설하여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고 지원했다.

소련의 수립에 자극받은 아시아 곳곳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했으며, 1921년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었고,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조선로동당의 전신)이 창립되었다. 다만, 코민테른이 사회주의자를 지원해 민족주의 진영과의 갈등을 부추기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의 1차 국공합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1] 1927년 4월 결정서는 <정우회 선언>의 민족 통일전선에 대한 사후적 승인으로써 신간회의[2] 결성에도 개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운동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3] 제1차 국공합작은 결렬되었고 신간회 또한 해소(解消)되었다. 코민테른은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의 협력을 그저 세계 공산화의 수단으로만 봤을 뿐 그 이상의 연대와 단결에는 관심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의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완전히 갈라서 각자의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를 적대하기에 이르렀다. 이 국면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이념대립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였으므로, 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간의 갈등이 직접적인 유혈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면 중국의 경우 양상이 전혀 달랐다. 주권을 유지하던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규모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으며, 합작이 결렬되자 1차 국공내전이 발발했다. 내전의 결과 공산당은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대장정 끝에 섬서성으로 이동했다. 만약 일본의 침략과 장쉐량의 '시안 사건'이 없었다면 중국 공산당은 이때 소멸하였을 것이나, 중일전쟁의 여파로 2차 국공합작이 형성되어 국·공간의 충돌은 전쟁 이후로 늦춰졌다. 그러나 갈등은 지속되었는데, 마오쩌둥은 "적의 후방에서 무력을 발전시키

---

1) 우리역사넷, 「코민테른」.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levelId=tg_004_3000
2) 김영진, 2021, 「1920년대 중반 코민테른과 민족통일전선ㅡ 1926년 3월 결정서에서 1927년 4월 결정서까지 ㅡ」, 『사림』, 78, p.305.
3) 우리역사넷, 「코민테른」, 위 사이트.

고 근거지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군과 싸워 전력을 소모시켜서는 안되며, 유격전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4] 중일전쟁 기간 중국 공산당은 일본과 맞서면서도 세력확장에 골몰해 1940년대에 이르면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국민당의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되었다.[5]

한편, 대전 말기 1945년 8월 유럽 전선을 마무리한 소련은 만주 전략 공세를 단행, 만주 전역을 점령하고 한반도 북부까지 진격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을 장악하고자 했던[6] 미국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한반도 분할 점령을 제안했고, 소련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소련의 참전은 동아시아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종전 당시 화남과 서북은 국민당군이 장악하고 있었고, 화북은 공산당군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일본 관동군(關東軍)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던 동북(만주) 지역은 권력 공백 상태였던 상황에서 동북 지역을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는 전후 중국대륙의 전반적 정세에 관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7]

이때 소련이 중국과 우호 동맹을 체결하여 형식적으로는 국민당 정부를 승인하였지만, 일본군에게서 노획한 병기는 공산당에게 제공하는 등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8]하여 여전히 국민당에 비해 불리한 공산당의 군사력 향상을 지원했다. 한반도의 경우 김일성이 1945년 9월 19일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원산항을 통해 입국한 후 단독 공산정권 수립을 위해 권력을 강화했고, 소련 군정은 이를 지원할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9] 이후 조선공산당의 후신인 조선로동당이 창당했고, 1948년 남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이념간 대립 구도가 정립되었다. 다만, 두 위기는 미묘한 시차를 두고 폭발했다. 국공내전이 미·소 냉전이 '형성'되는 과정의 산물이었다면, 한국전쟁은 중국의 공산화(1949)가 완료되고 냉전이 '고착'된 시점에서 발발했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 정립된 이념대립은 결국 전쟁으로 귀결되었으나, 그 전쟁의 성격(내전과 국제전)은 두 지역에서 판이하게 나타났다.

2. 전쟁의 양상 - 내전과 국제전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이 유사하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전쟁의 양상을 꼽을 수 있다. 두 전쟁은 같은 민족이 이념적으로 갈라져 서로를 살상한 '동족상잔'이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모두 중국인이 결성했고, 남북한 정부도 한국인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은 상대 이념에 속한 이들을 적대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각 정부의 지도자들은 이를 부추겨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 결과 국공내전에서는 최대 600만 명으로 추정[10]되는 군인,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한국전쟁의 경우 남북 합해서 300만~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를 냈다.[11] 전쟁 이후 양국은 분단국가가 되었으며, 뚜렷한 '종전'에 이르지 못하고 한국전쟁은 휴전, 국공내전은 휴전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듯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전쟁들이지만 유사성 못지않게 큰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각 전쟁의 명칭은

4) 이건일, 2014,『모택동 VS 장개석 중국국공혁명사』, 도서출판 삼화, p.278.
5) 클라우스 뮐한, 2023,『현대 중국의 탄생 청 제국에서 시진핑까지』, 너머북스, p.420.
6) 브루스 커밍스, 2017,『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현실문화, p.162.
7) 오수열, 김광수, 정순동,「2017,종전(終戰) 후 국.공간 내전과 승패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 동북아논총』, 22(1), p.55.
8) 나태종, 2010,「중국의 국공합작(國共合作)과 내전(內戰)에서 공산당의 승리요인 연구」,『한국 동북아논총』, 15(4), p.150.
9) 서정순, 2023,「6.25전쟁 원인의 복합성 연구」,『한국국가전략』, 8(3), p.127.
10) Lynch, M. (2022). *The Chinese Civil War: 1945-49.* 영국: Bloomsbury Publishing. p.133.
11) 와다 하루키, 2023,『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청아출판사, p.601.

그 차이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국공내전의 경우 그 규모가 거대했으나, 어쨌든 본질적으로 '내전'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소련 양-양국이 국공내전 당시 보인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미국은 물질적 지원 측면에서 국민당 정부를 아낌없이 지원했다. 1945년 8월 국민당 정부군의 253개 사단 중에서 39개 사단은 미국이 제공한 최신무기와 장비로 무장할 수 있었고, 5만 명의 미 해병대를 주요 항구 및 교통의 중심지에 상륙시켜 국민 정부의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으며, 국민 정부에게 내전의 막바지인 1948년까지 총 46억 110만 달러의 막대한 금액을 제공하였다.[12]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국공내전을 대한 최종적인 태도는 '방임'이었다. 1948년 이후 국민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사회개혁 실패와 인플레이션의 지속 등으로 미국은 국민당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13] 여기에 45년까지 지속된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은 1,000여만 명의 병력을 참전시켰으며 약 30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만큼[14] 종전과 동시에 또 다른 대규모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소련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1946년 초반까지는 공산당을 지원하는 것에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다. 만주에 주둔한 소련군은 국민당이 선양(瀋陽), 하얼빈(哈爾濱), 다롄(大連) 등지의 접수를 허락했지만, 공산당의 중국인민해방군(中國人民解放軍)에 대해서는 주요 도시와 철도 연변에서 철수토록 하였다.[15] 물론 이러한 소련의 태도가 중국 공산당을 포기하거나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것처럼 소련은 일본에서 노획한 무기들을 공산당에 지급하는 등 공산당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국민당에 대한 소련의 우호적인 태도는 사실상 소련의 대중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나온 잠정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16] 공산당이 내전에서 우세를 점하기 시작하면서 소련의 태도는 공산당에 기울었다. 다만, 소련은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다. 2차 대전에서 미국에 비해 훨씬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소련으로서는 추가적인 개입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또한 국민당이 민심 이반과 군사적 실책으로 몰락하고 공산당이 승기를 잡았으므로, 굳이 소련이 직접 참전해 공산당을 지원할 이유가 사라진 것도 한몫했다.

각국의 사정이 맞물려 내전의 형태로 끝난 국공내전과 달리, 한국전쟁은 그 형세가 전혀 달랐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합병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고, 이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해방 직후 군대가 전무했던 북한은 군사력 구축을 위해 소련의 군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17] 하지만 스탈린은 1949년까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950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1949년 소련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같은 해 국공내전은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1945년 트리니티 실험 이래로 미국은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었으나 그 우위가 깨진 것이다. 중국의 공산화는 거대한 인구와 시장을 가진 중국이 공산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공산 진영에 큰 힘이 되는 것이었고, 북한이 중국과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을 비롯한 지도부는 전략적 위치에서 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18]

이렇게 되자 스탈린도 전쟁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

12) 이희성, 2015, 『국공내전 시기 미국의 동맹전략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140), p.225.
13) 이희성, 2015, 위 논문, p.226.
14) 이희성, 2015, 위 논문, p.227.
15) 오수열, 김광수, 정순동, 2017, 위 논문, p.54~55.
16) 오수열, 김광수, 정순동, 2017, 위 논문, p.55.
17) 김광수, 2011,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 1948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를 중심으로 -」, 『군사』, (79), p.27.
18) 박태균, 2010, 「6.25전쟁 발발의 원인에 대한 재고찰 - 오인, 오식의 문제를 통한 접근 -」, 『군사연구』, (130), p.12 .

의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발언은[19] 스탈린과 김일성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오판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즉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했고, 이는 곧바로 실현되었다.[20] 미국을 포함해 총 16개 국가가 군대를 파견했으며, 6개 국가가 의료 지원을, 80여개 국가가 물자 지원에 나서며 전쟁은 국제전으로 번졌다.

미국이 참전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국공내전의 공산당 승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때 미국은 국민당의 지속적인 패배와 무능, 부패에 질려 버려서 사실상 포기했다. 그 결과 중국 대륙이 공산당에 의해 통일되면서 소련과 함께 양대 공산주의 국가로 부상했다. 이에 김일성이 전쟁을 결심하고 스탈린도 이를 승인하자, 미국은 한반도까지 공산 진영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국은 즉각 참전 의사를 밝혔다.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일본도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중화민국 몰락 이후 일본은 아시아 냉전 체제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21] 최악의 경우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었다.

UN군의 지원 아래 시작된 반격이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까지 밀려났다. 그러던 중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면서 전세는 급격히 역전되었다. 사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한국전쟁은 그 자체로 중국 정권에 큰 위협이었다.[22] 마오쩌둥은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각오하고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는데, 이는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고 공산권 및 제3세계에서 중국의 위상 확립, 마오쩌둥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23]

이후 1·4 후퇴를 거쳐 전선은 휴전선 부근에서 고착화되었다. 2년에 걸친 고지전과 휴전 협상 끝에, 1953년 한국전쟁은 휴전에 들어갔다. 흥미로운 점은 전쟁이 대규모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끝내 직접적인 참전을 피했다는 사실이다. 스탈린이 참전을 피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탈린에게 소련 대외정책의 중심은 유럽이었다.[24] 다만 해양 세력의 대륙진출을 저지할 완충지대와 태평양 접근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의 침공을 승인했을 뿐이다.[25] 따라서 소련은 북한과 중국을 활용한 대리전을 펼치며 미국과 직접 충돌을 피하는 전략을 구사했다.[26]

미국 또한 북한의 침공에 단호히 대응했지만, 확전은 원하지 않았다. 전쟁의 확전은 곧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 본토 봉쇄와 중국 국민당 인력 활용을 주장한 맥아더 원수를 해임했다.[27] 맥아더의 주장이 실행되었다면 3차 세계대전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미국의 초기 전쟁 목표는 대소 봉쇄정책에 기반했으며,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하고 북한군을 격멸하는 것이었다.[28] 목표를 달성

---

19) 박태균, 2010, 위 논문, p.15.
20) 동북아역사넷,「전쟁의 전개과정」.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edeah.d_0006_0020_0020_0020
21) 박태균, 2010, 위 논문, p.11.
22) 정상기, 강준영 외, 2019,『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 알에이치코리아, p.248.
23) 정상기, 강준영 외, 2019, 위 책, pp.250~251.
24) 최윤철, 2021,「스탈린,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정학적 관점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미친 영향 연구」,『중소연구』, 44(4), p.118.
25) 최윤철, 2021, 위 논문, p.121~122.
26) 강지현, 2023,「냉전 초기 3차 세계대전의 억제 원인에 대한 수준별 분석: 6·25전쟁 사례를 중심으로」,『군사연구』, (155), p.24.
27) 강지현, 2023, 위 논문, p.17.
28) 남정옥, 2006,「미국의 국가안보체제 개편과 한국전쟁시 전쟁정책과 지도」, (국내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p.124.

한 이상 미국은 확전보다는 휴전을 통한 전쟁 종결로 방향을 정했다.

국공내전이 명백히 내전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이라는 공통점 외에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국가의 전쟁이자, 미국과 소련 양국의 대리전이었으며, 서방 16개국과 중국이 참전한 국제전이었다. 그러면서도 소련은 참전을 피했고, 미국과 중국도 확전을 경계했기 때문에 '제한전 국제전'의 양상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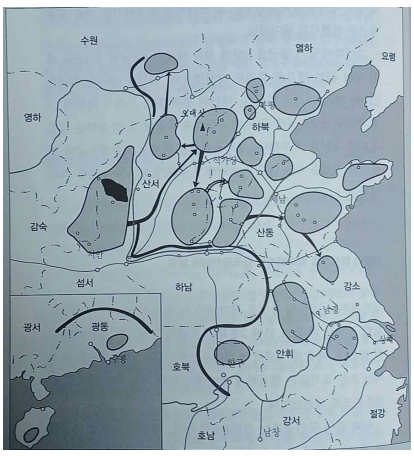
3. 지리적 요인과 전쟁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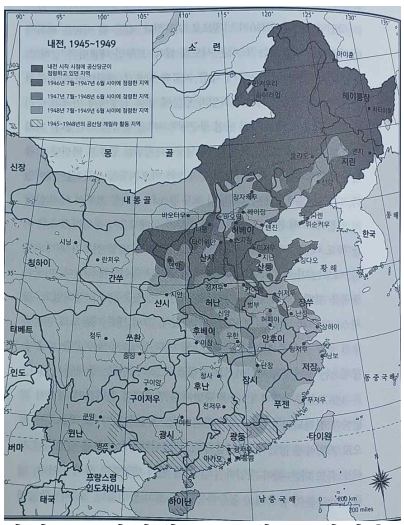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지리적 조건에 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인 반면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반도이다. 이러한 지리적 차이는 단순한 영토의 크기뿐 아니라, 각 진영의 세력권 분포, 전선의 형태, 전쟁 전략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물론, 두 전쟁에는 유사성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각 진영이 차지한 지역적 위치가 유사하다. 중국 국민당은 난징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남부를 근거지로 한 세력이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의 경우 2차대전 당시 근거지였던 옌안은 중국 서북부이며 소련의 점령으로 얻은 만주는 동북 지방이다. 대략 북부는 공산당 세력권, 남부는 국민당의 세력이었으며, 한국전쟁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나타났다. 북위 38° 선을 경계로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남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양 전쟁은 모두 북부의 공산주의 세력과 남부의 민족주의 세력 간에 벌인 전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전쟁의 실상을 파고들면 두 전쟁의 지리적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전선(戰線)의 차

<그림 1> 항일전쟁 이후 중공군의 후방근거지 상황도
이건일, 『모택동 VS 장개석 중국국공혁명사』
(도서출판 삼화, 2014), p.302

<그림 2> 내전, 1945~1949
클라우스 뮐한, 『현대 중국의 탄생 청 제국에서 시진핑까지』
(너머북스, 2023), p.442





이가 두드러졌다. 국공내전의 전선은 명확하지 않았다. 중일전쟁 도중에도 세력을 확대한 공산당은 '해방구(解放區)'라 불리는 세력권을 중국 북부 지역에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방구는 단일한 거대한 영토가 아니었다. 공산당의 근거지가 농촌이었던 만큼 여러 농촌 지역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공산당은 유격전과 정치공작을 활용하여 국민당 정부군을 교란하기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었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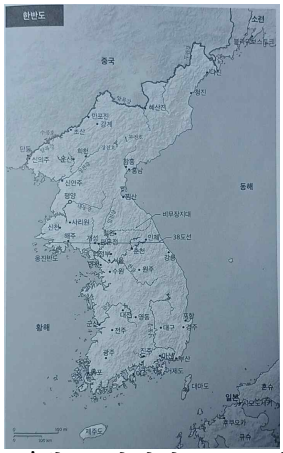
29) 오수열, 김광수, 정순동, 2017, 위 논문,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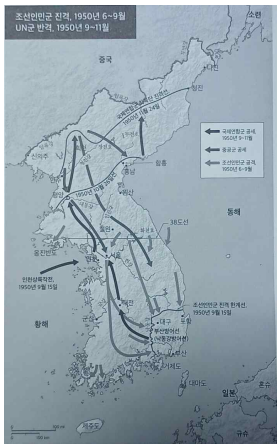
이러한 지리적 분산 속에서, 장제스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공산당의 근거지인 동북을 향해 공세를 시작한 것이다. 물론 개전 초기에는 국민당이 우세했다. 1946년 6월 국공내전이 본격화된 후 1년여 만에 베이징과 단둥을 점령하고, 오랜 기간 공산당의 거점이었던 옌안까지 점령하는 성과를 올렸다.[30]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산당은 농촌 지역을 장기적 기반으로 삼아 시간을 끌며, 국민당 군대가 점령한 도시를 공격하지 않는 전략을 취했다.[31] 반면, 국민당군은 만주와 베이징 지역에 각 50만명, 화중에 60만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각 지역의 병력은 대도시 위주로 분산[32]되고 만 것이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 국민당이 대도시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방이 중공군에 둘러싸여 격리되기 쉬운 형세가 되었다. 1948년 벌어진 이른바 요심(遼瀋), 회해(淮海), 평진(平津)의 3대 전역(三大戰役)에서 국민당군은 연패하며 후퇴를 거듭했고, 1949년 최종 패배 후 타이완으로 철수하는 국부천대(國府遷臺)를 단행하게 된다.

국공내전이 전선과 세력권의 경계가 불분명했던 것과 달리 한국전쟁은 훨씬 명확한 전선을 보였다. 한반도는 면적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전장의

<그림 3> 한반도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현실문화, 2017), p.25

<그림 4> 한국전쟁 전개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현실문화, 2017), p.26





위치가 '한반도'에 국한된다.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체 무장세력이라 할 만한 조직이 없었다. 해방 이후에는 북위 38°선을 경계로 북부에는 소련이, 남부에는 미군이 주둔해 군정을 실시하였다. 1948년에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한 국가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했던 국공내전과 달리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대립 구도를 갖춘 것이다.

전쟁의 양상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북한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는 근본적인 전략 차이가 존재했다. 중공은 중일전쟁 시기부터 세력을 확장해 북중국 곳곳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격전을 전개하여 내전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1949년에야 설립되었다. 김일성 본인이 동북항일연군을 이끌고 보천보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일제 치하에서 해방구를 건설하지는 않았다. 한편, 남한에

30) 조차현, 나태종, 2011,「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의 승리요인 분석 - 마오쩌둥의 군사사상과 5사7계를 중심으로 -」,『Journal of China Studies』, (10), p.49.
31) 이건일, 2014, 위 책, p.417.
32) 기세찬, 2025, 제2차「국공내전기 중국공산당의 승리 요인 분석」,『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76), p.93.

서도 조선로동당의 전신 중 하나인 남로당이 이끄는 유격대가 활동했다. 그러나 1949년 초에 들어서서 남로당 게릴라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북한지도부는 점차 전쟁을 통한 통일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33] 따라서 북한 정권은 유격전이 아닌 정규군에 의한 전면전을 감행하여 남한을 침공했다. 국공내전은 초기 국민당의 공세(북진)에 맞선 공산당의 유격전 및 소모전으로 시작되었다면, 한국전쟁은 북한의 선제적인 전면 공격을 통한 속전속결의 병합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전쟁의 전세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도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의 영향을 받았다. 한반도는 동고서저의 특성이 있어서, 동해안 일대를 제외하면 평지가 주로 서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로, 철도 등이 서부의 평야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전쟁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6·25전쟁 초기 주요 전선(戰線)은 철도, 특히 경부선을 따라 이동하였다.[34] 이름 그대로 서울과 부산인 기·종점이었다. 북한군은 모든 철도의 일반화물 수송을 제한하고 군수품 수송만 하도록 전환하였는데,[35] 철도가 북한군의 주 보급로가 된 것이다.

인천 상륙작전이 채택된 이유는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그중 한 가지를 꼽는다면, 수도 서울과 가깝다는 것이다. 인천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30여 km 떨어진 서울 시내로 곧장 돌입할 수 있다. 서울의 수복은 수도 탈환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정치적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결정적인 군사적 이점을 제공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부선의 기·종점인 서울이 점령당한다면 북한군의 경부선 철도 운행은 즉시 마비되고 보급로도 끊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선의 사기가 떨어져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 고립된 북한군은 연일 패배를 거듭하였고, 9월 28일 서울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퇴각하였다.[36]

이처럼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은 '대륙'과 '반도'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리적 조건 위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차이는 각 군 수뇌부의 전략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다시 전쟁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한반도의 분단이 현재와 같은 상이한 형태(대륙-섬, 반도-분단선)로 고착화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은 20세기 중반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바꾼 대규모 전쟁이었다. 두 전쟁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 그리고 대전 이전부터 존재한 이념 갈등이라는 공통의 배경을 공유했다. 그러나, 냉전의 '형성'과 '고착'이라는 각기 다른 시기적 차이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이러한 차이는 외세의 개입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국공내전은 본질적으로 '내전'이었던 반면 한국전쟁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 UN군과 뒤이은 중공군의 신속한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비화(飛火)되었다. 또한, 중국'대륙'과 한'반도'라는 지리적 조건의 상이함이 존재했으며, 이는 전쟁의 양상(樣相)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유격전'과 '거점 점령'이, 한반도에서는 '전면전'과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표되는 '보급로 절단'이라는 상이한 전쟁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과 한국은 '두 개의 국가'라는 언뜻 유사해 보이지만 성격 및 형태가 판이(判異)

33) 김광수, 2011, 위 논문, p.11.
34) 김지호, 2025, 「6·25전쟁에서 남·북 철도의 역할」, 『군사』, (132), p.94.
35) 김지호, 2025, 위 논문, p.94~95.
36) 김지호, 2025, 위 논문, p.98.

한 결과를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국공내전의 결과로 국민당은 공산당에 완전히 패배하고 본토인 대륙을 상실, 타이완으로 축출(逐出)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분단은 '대륙(중화인민공화국)'과 '섬(대만)'이라는 명확한 지리적 분리로 고착되었다. 반면 한국전쟁은 어느 한쪽의 명확한 군사적 승패 없이, 국제전이었으나 제한전의 성격을 띠었고, 휴전으로 봉합(縫合)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의 분단은 중국의 '대륙-섬' 분단과 달리 '군사분계선'이라는 인위적인 완충지대가 '한반도 내부'에 그어진, 상시적 군사 대치 상황이라는 전혀 판이한 형태로 귀결되었다. 즉, 국공내전이 '내전'의 명확한 승패로 귀결된 반면, 한국전쟁은 '국제전'의 현상 유지로 마무리되었기에, 현재까지도 중국과 한반도의 분단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 분단 구조는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의 정치적 긴장과 국제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평화적 통일을 향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로써 두 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역사적 유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논문

강지현, 2023,「냉전 초기 3차 세계대전의 억제 원인에 대한 수준별 분석: 6·25전쟁 사례를 중심으로」,『군사연구』, (155)
기세찬, 2025,「제2차 국공내전기 중국공산당의 승리 요인 분석」,『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76)
김광수, 2011,「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 1948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를 중심으로 -」,『군사』, (79)
김영진, 2021,「1920년대 중반 코민테른과 민족통일전선ㅡ 1926년 3월 결정서에서 1927년 4월 결정서까지 ㅡ」,『사림』, 78
김지호, 2025,「6·25전쟁에서 남·북 철도의 역할」,『군사』, (132)
나태종, 2010,「중국의 국공합작(國共合作)과 내전(內戰)에서 공산당의 승리요인 연구」,『한국 동북아논총』, 15(4)
남정옥, 2006,「미국의 국가안보체제 개편과 한국전쟁시 전쟁정책과 지도」, 국내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박태균, 2010,「6.25전쟁 발발의 원인에 대한 재고찰 - 오인, 오식의 문제를 통한 접근 -」,『군사연구』, (130)
서정순, 2023,「6.25전쟁 원인의 복합성 연구」,『한국국가전략』, 8(3)
오수열, 김광수, 정순동, 2017,「종전(終戰) 후 국.공간 내전과 승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2(1)
이희성, 2015,「국공내전 시기 미국의 동맹전략에 관한 연구」,『군사연구』, (140)
조차현, 나태종, 2011,「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의 승리요인 분석 - 마오쩌둥의 군사사상과 5사7계를 중심으로 -」,『Journal of China Studies』, (10)
최윤철, 2021,「스탈린,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정학적 관점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미친 영향 연구」,『중소연구』, 44(4)

참고 문헌 - 서적

Lynch, M. (2022). *The Chinese Civil War: 1945-49*. 영국: Bloomsbury Publishing.
브루스 커밍스, 2017,『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현실문화
와다 하루키, 2023,『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청아출판사
이건일, 2014,『모택동 VS 장개석 중국국공혁명사』, 도서출판 삼화
정상기, 강준영 외, 2019,『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 알에이치코리아
클라우스 뮐한, 2023,『현대 중국의 탄생 청 제국에서 시진핑까지』, 너머북스

참고 문헌 - 사이트

동북아역사넷,「전쟁의 전개과정」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edeah.d_0006_0020_0020_0020
우리역사넷,「코민테른」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levelId=tg_004_3000